
충청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제7차展

CHUNGCHONGNAM-DO COUNCIL DAUM ART HALL 7th EXHIBITION

서산문화원 **청심회** 민화작품 23점
더그리다 작품 16점

전시기간. 2022.

2. 14(월)

~

2. 25(금)

장 소. 충청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의회동 1층)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T 041-635-5054

주최·주관.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충청남도의회 다움아트홀

CHUNGCHEONGNAM-DO COUNCIL DAUM ART HALL



참 여 작 가

청 심 회 : 유소정 강태용 강건희

김경희 김미정 김미화

김성심 김양선 김소진

문경미 박성순 박은숙

안향선 유인순 유인순

윤은영 이경숙 이기숙

이화발 전득중 조정윤

정현숙 최영란



죽하맹호도
비단에 수묵채색 60cm X 120cm



YOO SOJUNG 유소정(청심 靑心)

죽하맹호도(竹下猛虎圖)는 대나무 아래의 용맹한 호랑이를 그린 것이다. 대나무는 거친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고 곧게 자라기에 선비의 지조와 절개에 비유한다. 옛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신령스러운 동물 그림을 걸거나 붙여놓고 한해의 평안과 행운을 빌었다. 이런 그림을 세화(歲畵)라고 한다. 세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림은 용과 호랑이다. 특히 호축삼재(虎逐三災)라고 해서, 삼재를 쫓기 위해 정초 해가 뜨자마자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였다. 이 작품은 세화의 의미보다 감상용으로 그렸지만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복을 기원하고 다행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로 감상하시길 바란다.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학과 조형예술학 석사졸업,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한국화전공)졸업
궁중장식화 국가전수 화원이수자 제2020-4호, 충남미술협회 민화, 서각분과 이사, 서산문화재단 이사, 서산문화회관 운영위원
한국민화진흥협회 서산지부장, 궁중장식화전수관 서산지부장, 대한민국창작미술협회 서산지부장, 서산미술인연합회 민화분과장
안견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서산문화원, 서산종합사회복지관, 대산커뮤니티센터, 태안문화원, 백화노인복지관 민화강의
010-3808-8408



신선도

한지에 담채 40cm X 60cm



GANG TAEYONG

강태용(서암)

신선도는 환갑이나 잔치 때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축원의 의미를 담아 선물했던 주제의 그림이다. 불로장생의 신선을 동경하고, 지상 어딘가에 있을 낙원을 소망하며 그려낸 신선도는 대개 배경을 산수로 표현하고 간략하게 그려 인물을 부각한다. 신선으로 보이는 인물은 폭포수를 바라보며 부채를 들고 환히 웃고 있고, 동자 두 명이 서로 짝을 이루어 등장한다.



문자도 제(弟)
한지에 분채, 먹 65cm X 90cm



GANG GEONHUI

강건희

문자도는 민화에서 글자의 의미와 관계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한자 획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한 그림 글씨를 말한다. 이 작품은 제(弟) 형제간의 도리, 형제(兄弟)끼리의 우애(友愛)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서로 도우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라는 덕목을 심어주기 위한 그림이다.



갈대와 기러기
한지에 담채 70cm X130cm



KIM GYEONGHUI

김경희(송석)

갈대와 기러기는 노안도라고도 부른다. 갈대의 한자어인 노(蘆)가 중국어에서는 늙을 로(老)와 발음이 같고, 기러기의 한자어인 안(雁)이 평안의 안(安)과 발음이 같아 이 두 소재를 합하면 늙어서 평안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기러기는 안서(雁書)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사랑을 받았다. 오른쪽 상단에는 중국 북송 때의 시인 소동파의 시가 쓰여 있다.

人生到處知何應 似飛鴻踏雪泥

사람이 한평생 무엇과 같을까 큰기러기 하늘을 날다가 눈내린 벌판에 잠깐 내려 앉음과 같은 것.



어해도
한지에 채색 40cm X 70cm, 2ea



KIM MIJEONG

김미정

물고기와 게 등 바다 생물을 그린 그림이다. 어해도에 등장하는 잉어는 등용문 고사와 연관시켜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쏘가리, 게, 거북도 입신양명과 연관이 많은데 쏘가리는 쫄(鰐)로 궁궐(宮)과 동일한 의미로, 게와 거북은 등껍질인 갑(甲)과 과거급제의 갑(甲)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 입신양명과 연관이 있다. 입신양명의 의미뿐 아니라 부귀와 다산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물고기 어(魚)와 남을 여(餘)의 중국어 발음이 유사하여 풍족한 삶을 상징하였다거나 물고기의 알이 많은 것을 들어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화접도
한지에 분채 38cm X 55cm



KIM MIHWA
김미화(윤슬)

나비는 조선시대 그림이나 가구 등의 일상용품에서도 사랑받는 소재였다. 나비를 한자로 쓴 '蝶(접)'은 80세 노인을 뜻하기도 하며 부귀와 화합, 장수를 염원하는 의미로 여겨졌으며,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 고사에서 비롯한 인생에 대한 철학적 깨달음을 담고 있기도 하다. 부드럽고 선명한 농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금붕어와 연꽃
한지에 채색 45cm X 65cm



KIM SEONGSIM
김성심(상안)

물고기 그림은 물고기의 알이 많은 것을 들어 부귀와 다산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금붕어는 금어(金魚)라 하여 금전운을 상승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어 풍수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꽃에서 노니는 금붕어 한 쌍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평화롭다.



파초도
한지에 채색 97cm X 130cm



KIM YANGSEON

김양선(해인)

이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파초가 있다. 그 아래엔 괴석이 있고, 사이사이에는 모란꽃이 빼곡하다. 파초는 먼저 나온 잎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시들게 되면 곧이어 새로운 잎이 밀고 나오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문인들에게 학문 수양을 향한 열정을 상징해왔다. 어떤 관점에서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 불굴의 의지, 혹은 불멸을 상징한다. 민화 속에서 파초는 주로 괴석과 모란이 함께 그려진다. 괴석은 자연을 가까이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항구 불변의 의미도 상징한다. 모란이 갖는 부귀영화의 의미까지 보태 길상의 의미가 더해진다.



화접도
한지에 채색 60cm X 60cm



KIM SOJIN 김소진

청대제일의 궁중화훼화가 운수평의 모란꽃에 흰 나비를 그려 넣었다. 이 작품은 모란꽃 한 송이가 큼직하며 섬세하게 바림하였고 구도는 간결하게 그려졌다. 기품있는 모란의 형태가 아름답고 우아함이 느껴진다.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집안에 모란꽃 그림을 걸어두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나비는 인복을 의미한다.



화접도

한지에 분채 65cm X 65cm



MUN GYEONGMI

문경미(소화)

열은 분홍색 바탕에 그려진 화접도는 삶의 부귀와 행복에 대한 열망 및 축원을 활발하게 표현해 사랑받았던 조선시대 민화의 한 장르이다. 4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찾아드는 나비의 모습이 '부부의 화합'과 재물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한다.



화조구자도
한지에 채색 50cm X 70cm



PARK SEONGSUN

박성순

영모화에 뛰어났던 이암의 그림을 재현했다. 꽃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강아지를 중심으로 봄날의 정취를 표현한 그림이다. 나무 위에는 새 한 쌍이 쉬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비가 날아오고 있다. 나무 아래에는 낮잠을 자는 강아지와 벌레를 가지고 노는 친진한 강아지의 모습이 정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전모를 쓴 여인
한지에 채색 60cm X 70cm



PARK EUNSUK

박은숙

전모란, 조선시대 여성들이 나들이 때 쓰던 쓰개의 하나이다. 주로 멋내기를 좋아하는 기녀들이 바깥나들이를 하거나 말을 탈 때 썼다. 아무런 배경 없이 화면을 메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보는 이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짧은 저고리에 치마를 풍성하게 부풀려 입었는데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다. 전모는 양산만큼 크고 그 아래턱을 약간 숙이고 있는 모습엔 속눈썹이 양증맞은 어여쁜 얼굴이 숨어 있다. 한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연습을 하러 가고 있다. 당당하고 유행에 민감한 이 시대의 여성과 과거의 여인상을 재해석 한 그림이다.



묘접도
한지에 먹, 채색 45cm X 65cm



AN HYANGSEON

안향선(무우)

고양이는 개와 함께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의 하나로, 밤중에도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집에 고양이가 있으면 밤에 활동하는 귀신들이 범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미술작품에서의 고양이는 주로 장수를 기원하거나 70세가 되었음을 축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고양이 묘(貓)자가 70세를 뜻하는 한자 모(耄)와 중국식 발음이 같은 데서 기인한다. 이 그림에서 고양이는 기쁨을 의미하는 참새와 함께 그려져 축수(祝壽)의 의미를 가진다.



궁모란도
한지에 채색 23cm X 130cm, 2ea



YU INSUN
유인순(지당)

궁모란도는 각 폭마다 신비롭게 생긴 괴석을 타고 오른 붉은 줄기에 탐스러운 모란 꽃송이가 최소 아홉 송이가 달려있다. 줄기는 갈색이고 꽃은 빨강·하양·노랑·분홍빛을 띠고 있어 오색이 찬란하다. 어찌 생각하면 촌스러운 것 같지만 이 작품에서는 채도를 무게 있게 가라 앉혔다. 본래 모란병풍은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혼례식 때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초례청에는 꼭 설치되는 ‘국민 장식병풍’이었다.



청룡도
한지에 채색 40cm X 90cm



YU INSUN
유인순(난계)

청룡도는 정월초 궁궐이나 관청의 대문 등에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붙였던 그림이다. 구름 속에 몸을 틀며 하늘로 오르는 용의 모습을 소재로 다룬 이 그림은 몸체의 비늘을 섬세한 필선으로 그려냈고 구름은 굵이치는 파도와 같다. 그 속을 나는 용의 표정에는 위엄이 있으며, 채색이 화려하게 가미되었다.



초충도
한지에 채색 120cm X 4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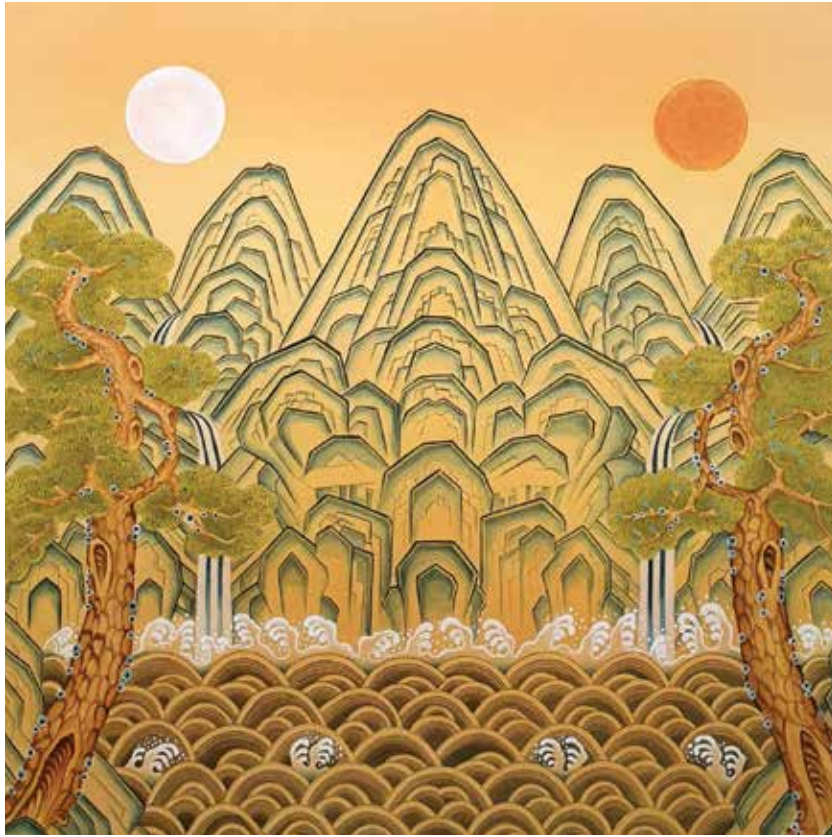


YUN EUNYEONG

윤은영(화정)

〈수박과 들쥐〉, 〈가지와 방아깨비〉, 〈오이와 개구리〉, 〈양귀비와 도마뱀〉신사임당 초충도 연작이다.

첫 장면에는 수박과 패랭이꽃이 있고, 수박을 파먹는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마리의 나비가 나타난다. 씨가 많은 수박이나 패랭이꽃은 모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한 쌍의 나비는 부부간의 화목을 의미한다. 두 번째 장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가지를 중심으로 그 왼쪽과 오른쪽에 뱀딸기와 쇠비름이 나있다. 하늘에는 두 마리의 나비와 두 마리의 벌이 나르고, 땅 위에는 개미와 방아깨비가 나타난다. 주렁주렁 달린 가지는 다자(多子)와 다복을 상징하고 한 쌍의 나비는 부부 간의 화목을, 한 쌍의 벌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 개미도 쌍쌍이 길을 나서 역시 비슷한 상징으로 보인다. 세 번째 장면에는 오이와 풀꽃을 중심으로 땅에는 개구리와 여치가 나타나고, 하늘에는 한 마리 벌이 나르고 있어 늦여름을 의미한다. 씨가 많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오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네 번째 장면에는 활짝 핀 양귀비꽃과 패랭이 꽃 좌우로 나비 한 쌍이 나르고, 땅 위에는 도마뱀과 하늘소가 나타난다.



일월오봉도
한지에 금분채색 60cm X 70cm



LEE GYEONGSUK

이경숙(소화)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어좌 뒷편에 놓였던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왕조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오봉도는 조선시대 궁궐 의례(儀禮)와 관련되는 중요한 그림이다. 그 도상적 연원(淵源)은 중국의 시경(詩經)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매우 독특한 형태로 발달한 국왕의 존재를 상징하는 궁중회화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평가된다. 이 그림은 오방색의 순수한 색채를 절제하고 금분을 이용해서 밝고 은은하게 표현하였다.



모란도
한지에 채색 32cm X 32cm



LEE GISUK

이기숙

모란은 꽃이 크고 탐스러우면서 색이 화려하고 기품이 있어 찬탄을 받았다. 중국 진한시대 이전에는 약재로 여겨지다가, 남조 때 관상화로 문헌에 등장하며 당대에는 '국색천향(國色天香)'이라 하여 중국을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 잡았고 부귀와 아름다운 여자를 상징하였다. 이 작품은 원형의 구도에 붉은색 모란을 중앙에 넣어 장식성을 두었다.



모란도
한지에 채색 47cm X 70cm



LEE HWABAL

이화발

모란은 고대부터 화조화와 장식화의 소재로 애호되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모란도는 삼국시대부터 그려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하는 작품은 대부분 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 말기로 갈수록 부귀영화의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단독으로 그려졌다. 모란꽃은 바위와 함께 정면의 만개한 모습, 측면의 만개한 모습,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모습과 봉오리로 묘사되며 짙은 홍색과 옅은 홍색, 황색, 백색으로 채색되었다.



까치호랑이
한지에 먹, 담채 40cm X 60cm, 2ea



JEON DEUKJONG 전득중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알려진 까치호랑이는 그 도상이 원나라 및 명나라 호랑이 그림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후기 호랑이는 양반이나 권력을 가진 관리들 상징하고, 까치는 서민을 대표한다. 까치가 호랑이에게 대드는 구성을 통해 서민들은 신분제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지혜를 발휘했다. 실제 당시 서민들 사이에는 <까치 호랑이 설화>가 유행했는데, 그 내용은 까치가 지혜로 힘센 호랑이를 골탕 먹임으로써 신분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억울함과 푸대접을 항변하는 것이다. 즉, 서민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가 까치호랑이 속에 반영하였다.



신선도
한지에 채색 37cm X 90cm



CHO JEONGYUN 조정윤(취산)

신선이 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모든 인간의 바람인지도 모른다. 세속적인 지위나 명예를 벗어던지고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신선의 풍모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 보는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갈홍은 별과 함께 등장한다. 별의 몸통과 날개를 열게 채색하여 가벼운 날개짓을 잘 표현하였고 다른 쪽은 오동나무를 닮는 등자와 신선을 묘사했다. 건물에 표현과 인물의 의복선, 얼굴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송학도
한지에 채색 45cm X 75cm



JEONG HYEONSUK
정현숙(은천)

학은 십장생중에 하나이며 장수를 상징하고 선비의 고고한 정신, 천년의 장수 등 좋은 의미가 두루 갖고 있는 그림이다. 깃털의 묘사, 새의 얼굴 등의 표현이 섬세한 궁중장식화이다. 뒤에 배경으로 소나무와 바위는 흐르는 계곡물 등은 수묵담채로 은은하게 표현해서 하얀 학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모란도
한지에 채색 33cm X 40cm



CHOI YEONGRAN

최영란

모란도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며 궁중회화와 민화의 대표적인 화제로 그려졌다. 한 가지에서 만개한 모란 혹은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모란 등을 홍색, 청색, 황색, 분홍색 등 채도가 높은 안료를 통해 진채의 모란도로 완성되었다.

참 여 작 가

더그리다 : 강선화 권오임 이현숙

김선정 김의수 방보배

송영자 이미란 한윤경



작약 아르쉬지, 수채화 53cm X 40.9cm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붓질을 해본다.



Good news 아르쉬지, 수채화 53cm X 40.9cm
새로운 좋은 소식을 늘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붓질을 해본다.



GANG SEONHWA

강선화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2007 ~풀이 (대전 갤러리, 삼성생명 갤러리 대전), 2008 ~풀이 (이공 갤러리 대전)

2009 Asyaaf (옛 기무사 건물 (서울 경복궁 옆) 서울), 2010 인사아트 플라자 이형아트센터 (단체전)

2012 Asyaaf 문화역 서울 284, 롯데백화점 'small masterpiece' 광복점

2018 제2회 야외전시 하남 청년작가전 나들이 on 미술관展, 2009·2012 아시아프 청년작가 선정

작품소장 | 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갤러리 스킨로 작품소장 그 외 다수

현재 | 서산문화원 수채화, 유화강의, 서산 서부평생학습관 미술강의, 그림채아들리에 운영

충남 서산시 동서1로 170 그림채 아들리에 / 010. 7114. 3318



나의 살던 고향에 꽃피는 산골 Oil on canvas 72cm X 116cm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의 감나무를 회상하며 그렸다.



KWON OIM

권오임

2016 The 그리다 서산문화회관 단체전

2020 제37회 경인미술대전 특선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소길이길 69-7 보혈교회 / 010. 9043. 1004



암中암, 庵中岩 (암중암, 암중암) 아르쉬지, 수채화 115cm X 72.7cm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쉼의 모습



LEE HYEONSUK

이현숙

2020 제24회 마음을 열다 서산수채화협회 단체전, 제9회 아름다운 동행 서산 미술인 연합회전

2021 제10회 아름다운 동행 서산 미술인 연합회전

제37회 경인미술대전 입선, 제38회 경인미술대전 입선

충남 서산시 죽성동 삼성아파트113-206 / 010. 4270. 7806



Free ze tag (얼음땡) Oil on canvas 60.6cm X 60.6cm

만개한 튜립이 마치 우리네 얼음땡 놀이 같다. 내 인생에 얼음이라고 외치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일까?



함박꽃 아르쉬지, 수채화 116cm X 72.7cm

사골 마당에 피어있는 함박꽃의 꿈.



KIM SEONJEONG

김선정

2015 서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파구스 갤러리
2016 서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The 그리다 서산문화회관 (단체전)
2019 제36회 경인미술대전·한국 창조미술대전 입선
2020 제37회 경인미술대전·한국 창조미술대전 특선
2021 한국 창조미술대전 장려상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9 202-404 / 010. 2380. 2386



내 마음을 달래주세요 아르쉬지, 수채화 60.6cm X 72.7cm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부는 바람에도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지금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혼합재료 90.9cmX95.1cm

누구나 가을이 되면 더욱 생각나는 모든 이들과의 사랑을 추억하며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고자 한다.



KIM UISU

김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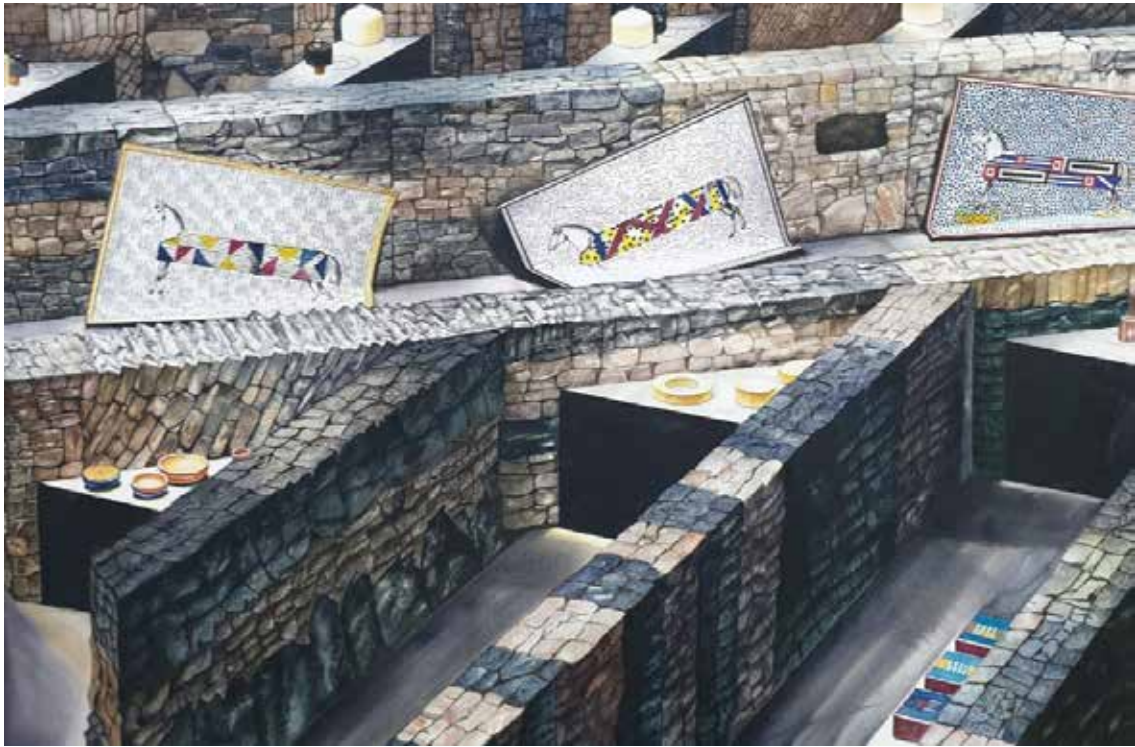
2015 서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파구스 갤러리

2016 서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The그리다 서산문화회관 (단체전)

2019 제36회 경인미술대전·한국 창조미술대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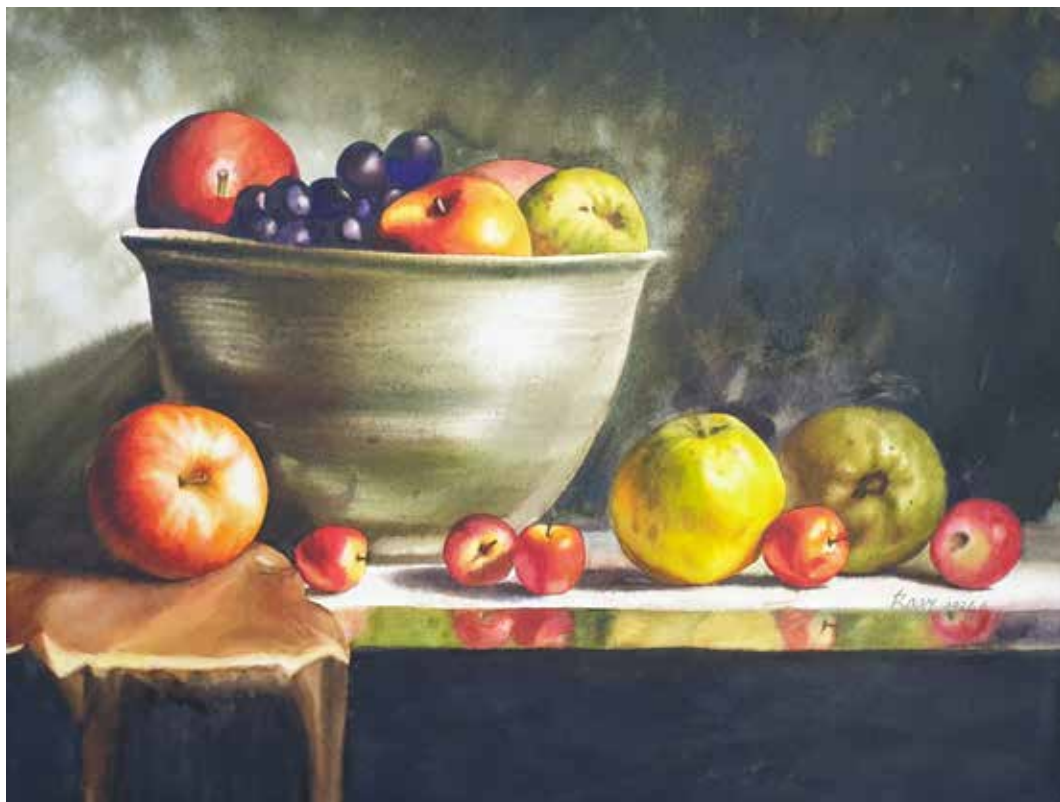
2021 한국 창조미술대전 우수상

충남 서산 코아루아파트 103-103 / 010. 5650. 8589



실크로드 아르쉬지, 수채화 116.5cm X 91cm

돌에 관하여 늘 관심이 있었고 이 돌을 보는 순간 색감에 매료되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동행 아크릴지, 수채화 72.7cm X 60.6cm
우연히 질그릇에 흥미를 느껴 그리기 시작하였다.



BANG BOBAE

방보배

2016 The 그리다 서산문화회관 (단체전)

2020 제7회 한국창조미술대전 특선, 제37회 경인미술대전 입선

청구제네스102-107 / 010. 3218. 5464



해바라기 | 아르쉬지, 수채화 70cm X 80cm

해바라기가 있으므로 집의 평화와 복을 받게 하소서.



죄와 벌을 아시나요 아르쉬지, 수채화 114cm X 88cm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한 터치 한터치 그려봅니다.



SONG YEONGJA

송영자

2016 The 그리다 서산문화회관 (단체전)
2020 제7회 한국창조미술대전 특선, 제37회 경인미술대전 입선
충남 서산시 대서동 11길 5-4 / 010. 9235. 4398



위안(양귀비) Oil on canvas 60.6cm X 72.7cm

위로와 위안이라는 꽃말의 양귀비꽃을 보며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에 위안이라고 명명하였다.



소담 Oil on canvas 60.6cm X 72.7cm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고 깔끔하게 담아내는 음식을 소담이라 하는데 음식을 향기에 비유해서 향기를 담다 하는 뜻으로 소담이라 명명하였다.



LEE MIRAN

이미란

2016 The 그리다 서산문화회관 (단체전)

2018 제35회 경인미술대전 입선, 제5회 한국창조미술대전 특선

2019 제6회 한국창조미술대전 특선, 안건사랑미술대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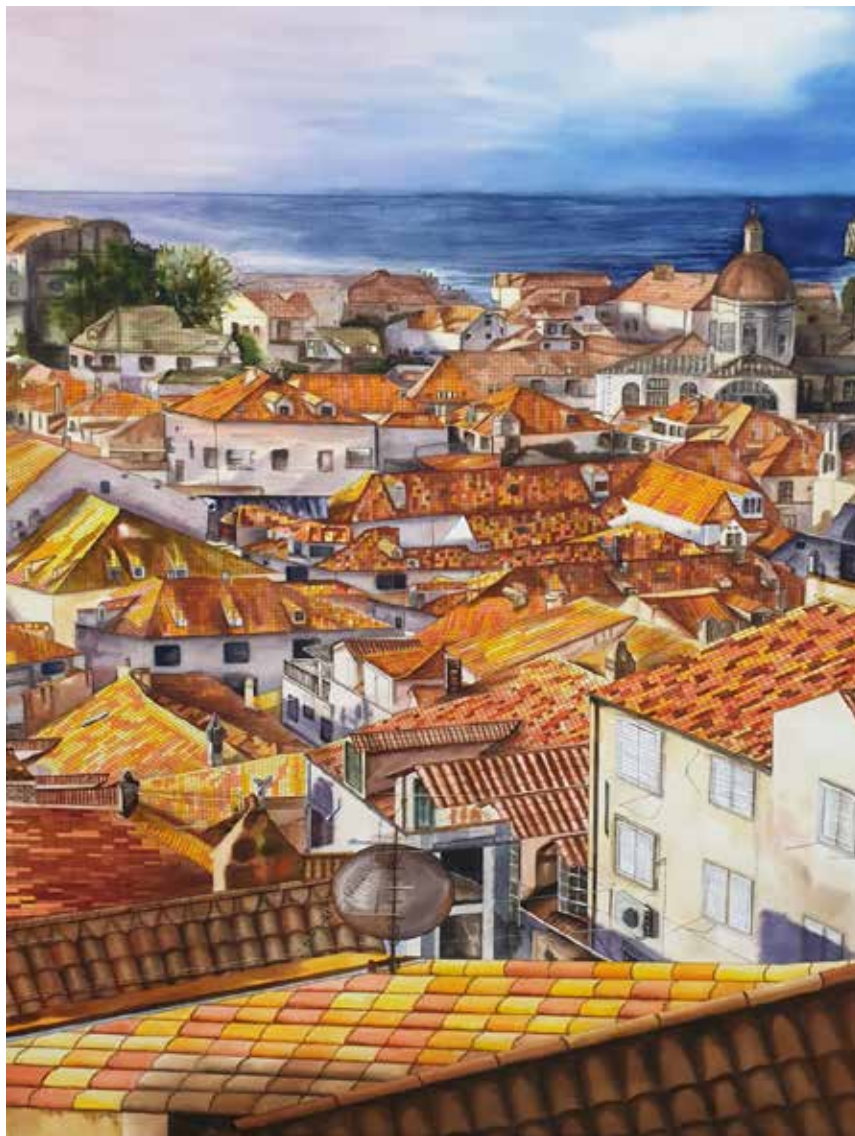
2020 제7회 한국창조미술대전·제37회 경인미술대전 특선

2021 제38회 경인미술대전·제8회 한국창조미술대전 입선

충남 서산 동신아파트104-201 / 010.6672.9110



지난 여행의 순간을 그리워하다 혼합재료 91cmX116.5cm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을 때 지난 날의 여행을 추억하며 그렸습니다.



6번째 계절 아크쉬지, 수채화 91cm X 116.5cm
세계적인 명소의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날을 희망하며 그렸습니다.



HAN YUNGYEONG

한윤경

2017~2020 서산문화회관 어울림 (단체전)

2021 제 38회 경인미술대전 입선

충남 서산시 석림4로 83 신주공아파트 208-1504 / 010. 2231. 5771

충청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제7차展

CHUNGCHEONGNAM-DO COUNCIL DAUM ART HALL 7th EXHIBITION

전시기간. 2월 14일(월)~2월 25일(금)

전시장소. 충청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의회동 1층)
충남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T. 041-635-5054

주최·주관.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